



한국농업 변신해야 산다

■ 김호탁/서울대학교 농경제사학부 교수

우리나라 농업은 지금까지 국가가 요구하는 기본 소명인 식량안보와 국토보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모든 선진국들이 겪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업의 상대적비중은 감소하여 왔으나 쌀과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은 국내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왔고 도농간 소득격차 또한 농가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농가의 평균소득 수준과 농촌생활 환경은 완만하게나마 향상되어 왔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까지 그나마 그렇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농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급변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은 변신해야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변하지 않고는 농업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징후와 여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여건의 변화가 우리 농업에 어떤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농업이 변신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변화 거부하는 농업, 생존 위협 초래

우리 농업을 둘러싼 여건 중 가장 큰 변화는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라 하겠다. WTO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계시장에서 알몸으로 다른 나라의 농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과거와 같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과 영농관행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게 농업을 둘러싼 국제 무역환경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변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1994년에 UR농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세계무역기구도 출범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농업이 변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는 한 우리나라 농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종국적으로는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산업간 성장속도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와 모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변화와 개혁이다. 급변하고 있는 최근

세계사의 물결 속에서 변하지 않고는 어느 분야도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속도는 갈수록 가속화 하고 있고 모든 분야로 변화의 물결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였던 록펠러가(家)가 백년간에 걸쳐 모을 수 있었던 재산을 빌 게이츠는 불과 몇 년 안에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은 젊은 벤처사업가들이 이룩한,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성공사례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반대로 변화의 물결에서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즈음 세태의 다른 한 단면이

“

‘예상되는 변화’ 신속대응 · 상응 변신 있어야 생존 가능 ‘농업의 미래’ 농업인 어깨에, 의타심 밝은 미래 담보 못해

”

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이 변하지 않고 현재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게 되고 내적으로는 도농간·산업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농간의 소득격차야말로 농업의 흥망성쇠와 존폐를 가름하는 기본지표라고 볼 수 있다. 타 산업에 종사하는 것 보다 농사짓는 것이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누가 농촌과 농업을 떠날 것인가? 반대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면 누가 농업을 지키며 농촌에서 살려 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농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것에 맞추어 변신해 나갈 때 우리는 농업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그룹이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계의 으뜸그룹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보다 먼저 미래의 변화를 내다보고 적절한 투자와 변신을 거듭해온 결과인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와 수요구조도 변화를

거듭한다.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먹는 것에서 출발하여 입는 것으로, 그리고 소득이 더 증가하면 소비자들의 욕구는 문화와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정부 · 농업인 지혜 모아 함께 노력해야

그 동안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품수요 구조에 맞추어 그룹을 운영해 온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먹는 것과 입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던 시절에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으로 시작한 삼성은 항공기 제작과 조선업 등 중화학공업화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친 후 이제 반도체개발을 포함한 전자와 IT산업 등 최근의 첨단 기술단계로 진입할 때까지 경제발전 단계를 거칠 때마다 미래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통해 변신을 거듭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위에서 지적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성공한 기업들이 해온 것과

같이 우리 농업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현재 진행 중인 도하협상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금보다 더 감축되고 농산물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촉진되는 방향으로 진전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 같은 협상 결과는 농업자원의 부존 면에서 불리한 우리나라 농업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 확실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시장 개방과 무역자유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여건이며 우리나라 농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UR농업협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역자유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져 올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킨 나머지 농민들은 시장개방이 가져 올 피해의식에만 지나치게 사로 잡혀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무역자유화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주로 국내소비를 대상으로 생산하였던 우리 농업이 이제 무역자유화를 계기로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해 나갈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회를 우리나라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 가능한 기존의 정책은 지금보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품종의 선택과 개발보급, 그리고 해외공관을 활용한 농산물무역 관련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 등을 들 수 있겠다.

끝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앞날은 그 누구보다도 일차적으로 농업인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농업인이 앞장서서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여 나갈 때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게 다가올 것이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국민들에게 호소했던 유명한 취임사의 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농업인들에게 전하고 싶다.

“정부는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농업인인 나는 우리 농업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를 늘 묻기를 바란다. **농약정보**